

설 화

차 례

1. 설문대할망 이야기
2. 낮으로 오름 벤 장사 이야기
3. 김생도 장사 이야기
4. 김생도 장사 어머니 이야기
5. 정지관과 오훈장
6. 효자 흥달한 이야기

1. 설문대할망 이야기

제보자: 옛날에 우리 들을 때 설문대할망을 곁는 건, 소섬광 성산광 지 금도 있지 않이어게. 옛날에 소쟁이 한착 부족해영 그디 드릴 안 뵈젠 옛날엔 경행 곁앙게.

곁는 거 보난 발자국 흐나 놓아불믄 오름 흐나 발자국 놓으믄 오름 흐나라부난 저 옛 어른들 말이라도 제주도엔 본래부터 오름들이영 막 불라부난 제주도 오름이 곱부리 어신디가 없지 않이어게. 곱부리 이서 부난 지진 안 난덴 말만 들어났주.

경해부난 거 소섬을 가지 못해부난 폰 섬 드릴 못났덴 허는 거라. 옷 을 허당 부족허난, 그걸 흐끔 당해주민 드릴 뇌주켄 해신디 그걸 못 당 해부난 소섬이영 성산이영 드릴 못났젠 허는 거라.

조사자: 육지영 제주도영 연결시키는 다리가 아니라 소섬이영 성산이영 다리 놓는거구나예.

제보자: 어게. 우리마을이영 소섬이영게.

정양길(여, 90세)

2. 낮으로 오름 벤 장사 이야기

제보자: 옛날에는 대장간 보고 불미간 이랜 해서. 계난 우리 집 어르신 중에 그 힘 좋은 분이 가시리 불미간에서 낮을 영 행 오당 나스리 오름이랜 헌디 지나가게 되서. 경행 그 하르방이 이거 낮 잘 들엄신가 한번 봐 보젠 오름 올라가명 베기 시작한 거라. 근디 오름 끝트레 가도 낮이 괜찮다 이거지. 아 또 내려오명 허니깐 하, 이거 또 이상하다 이거지. 계난 영 낮을 보니깐 그거 뭐냐 둥근 그릇 있잖아이. 그 낮도 물 드레 막 둥글꺼 아냐. 둥근 그릇이 다 되 분거라. 계문 그 낮 못쓸 거 아 니냐게. 경 허명 오름 받을 베 부러서.

계난 원래 그 낮이 잘 안 드는 거여 나신디 그 우리 어르신이 그 낮 사그넝 심으로만 해부난 낮이 잘 만들어 진건지 잘 안 된건지 몰르지.

조사자: 그 장사 이름은 모르쿠과?

제보자: 내가 듣기론 김생도일거여. 김생도 장사랜 허문 맞을 거라.

김정길(남, 67세)

3. 김생도 장사 이야기

제보자: 옛날에는 (마을에서) 쉼을 많이 길렀거든이. 켜디 어느 집에서 소를 어떻 허당 보난 겨울철에 잘못해서 소가 죽어불엇단 말이여. 계난

이 소를 치와사 할건디. 누구를 부를거나 얘기하다가 그 집 할망이,

“생도 하르방 불러다그넝 치우른 될거 아니꽈?”

하니깐 아 것도 맞는 말이라.

그래서 그 집 아들이 김생도 장사신디 가그넝 일이 이렇게 돼서 부
탁 좀 허쿠다 하난 생도 하르방은

“허허, 그 지게, 그거를 든든헌거 호나만 어디강 구행 오라.”

이추룩 말한 거라. 지게는 그 때 농촌에서 상당히 중요했으니깐.

이젠 그 지게를 구해서 갖다놓고, 다 준비되수다 하명 생도 장사신디
가서. 경허난 생도 하르방은

“허. 나가 지금 무시겨 먹지도 아니허고 그 집이 해 논 탁배기라도 이
시몬 경해도 혼 두어대 먹엄시몬 살아지켜.” 영 곤 거라.

게니깐 이제 그 집 아들은,

“아 그거 집이 이시난 경허쿠다.”

해서 가서 탁배기여 밥이여 영 안내어그넝 그 탁배기 두 대를 다 마셨
지. 다 마셔지난

“췌헌티 글라” 해그넝 주인은 지게 심영가고 그 장사는 췌다리 4개를
영 묶어가지고

“내불라. 이젠 나대로 지영 강 아무디나 데껴불주.”

하명 가서. 경행 그분이 힘이 그렇게 장사라.

김정길(남, 67세)

4. 김생도 장사 어머니 이야기

제보자: 김생도 그 분 모친이 여자분인디도 심이 장사였거든. 그 할머
니영 그 분 남편이지? 그 하르방이영 말을 곧당 보난 그 하르방이 각
시 말을 안 들은 거라. 경행 그 각시는 심은 있지 용심나고 허난 그 하
르방을 들렁 데껴 분거라. 췌디 하필이론 데킨디가 지붕우이라. 이제 거

기 지나는 사람이 그 하르방 보고,

“아, 자네 어떻게 그디 올라강 있어?”

(당시는 가을이었고 이 시기에 호박이 열렸는데, 제주도는 호박 줄기를 지붕위로 뻗게 해서 호박이 지붕위에서 열리도록 하였다.)

“아, 우리 할망이 호박 하나 땅 오랜 행 올라와신디 어느걸 따코 허멍 지금 생각중이라.”

영 굴으난 지나가던 사람은 할망하고 싸와그녕 지붕 우트레 던져분 생각은 안 허고 호박 딸걸로만 생각해영 집이 가불어서.

젠디 그 하르방 이제 지붕 우에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라. 계난,

“아, 할망 사다리라도 이레 알다줘게.” 영 굴아신디 할망은,

“사다리는 무시거! 이레 저 들러키른 나 심으크메.”

경해서 지붕우에서 알드레 털어지는 하르방 심어그녕 내려 났다고 하는 얘기 있어.

김정길(남, 67세)

5. 정지관과 오훈장

고성리에는 정지관이라 해서 땅을 잘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못자리도 보고, 택일도 하는 등 풍수지리에 능했다. 그리고 그의 선배인 오훈장은 그보다 능력은 못했으나 정지관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늘 정지관을 무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두 사람을 함께 대접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한다. 이 얘기는 고성리 주민들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지관의 설화이다.

6. 효자 홍달한 이야기

그 사람이 홍씨일 거라. 홍씨주. 옛날부터 효자랜 행 막 소문나신디, 자시 부모님 댁 수발을 어떻게신고 허난, 지 손 베어그넝 그걸로 약 지 서서 부모 맥이고, 부모가 똥 싼 거 있지 아니어게? 그거 먹어가명 ‘아, 우리 어멍 뱅이 낫질 아니햐져.’ 영도 해나서.

이제 경행 있당 어멍 죽으난 어드레 강 물어사 할 거 아니라. 계난 어디니 저 소수산봉 가그넝 부모 묻고 3년 지나도록 혼자 그디서 산담 지스난 마을 사람들도 영 오고가명 “아이고, 자이 어멍 살아 접시냐” 하명 그 산담 지스는 거 흐뎀 씩이라도 도와주고 하명 했덴 헨게.

김정길(남, 67세)

홍달한이라는 사람은 고성리의 이름난 효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서 기존의 알려진 것과 달리 자기 삶을 때어서 부모님 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약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부모님의 간병을 하면서 부모님의 변을 맛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변의 맛으로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매우 슬퍼하였다고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홍달한은 소수산봉에 부모님 묘를 만들고 그곳을 지키며 3년 동안 혼자 산담을 지었다고 한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이 홍달한의 효심에 감동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서로 돌을 날라 홍달한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또 그는 부모님에 대한 효심만큼 나라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했다고 한다. 그가 살던 때 숙종이 죽자 그는 현 구좌읍에 있는 다량쉬 오름(월랑봉)에 올라 초하루 보름날 향을 피우고 임금이 살던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때 궁궐에서는 향냄새가 진하게 나서 알아보니 제주도의 홍달한이라는 자가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을 피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나라에서는 홍달한에게 가선대부의 벼슬을 주고 마을에 효자비를 세워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 홍달한의 후손들이 조선시대에 세운 효자비 바로 옆에 다시 큰 효자비를 세워 그 자리에는 효자비가 2개이다. 이 효자비는 현재 수산리에 있다.

이 이야기는 홍달한의 직계 후손인 홍원우 씨의 제보로 알게 되었다. 홍원우 씨는 1992~1997년에 성산읍장을 역임하였고, 홍원우 씨 자택에 홍달한 씨에 관한 기록이 있는 고문서가 있다.

■조사자: 이원석(02), 전병학(03), 고명원(03), 황문경(05), 김리나(05),
이경지(05), 김수연(05), 진승현(06), 한혜원(06), 이영준(07),
변정은(07), 임아름(07), 현윤선(07), 윤혜완(07), 한성용(07),